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9 November 2015 (afternoon)
Lundi 9 novembre 2015 (après-midi)
Lunes 9 de noviembre de 2015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징 소리

방울재 손 칠복(孫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땀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 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5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 아이를 업고 불쭙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댕돌같이 앉아서 목이 터져라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10 고개를 끄덕거리 가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증얼거리다가도, 불럭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러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염병을 앓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왁살스럽던
15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기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 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 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덕칠야, 봉구야, 싸게싸게 갈치배미* 나락 베러 가자.”

징 징 징——징 징 징 —— (중략)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 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희옴하게 울타리처럼
20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 차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쪼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쭈잖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니, 보상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25 이미 인근 농토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 하고 솔래솔래 곱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읍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를 열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30 전세돈이나마 가까스로 건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빨간 모자 낚시꾼은 뚜벅뚜벅 곧잘 말을 걸어 왔다.

“사람들꺼정 한꺼번에 잼겨 뿐 거이 더 마음 아프구면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35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우.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정 붙이고 살아온 방울재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 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우.”

“예끼 여보슈, 또 무슨 소리라구!”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땀이 원망스럽겠군요.”

40 “으째서유?”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 “위디가유. 아무리 배우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짝 맥힌
 45 멍충이들이란가유? 땀이 생겨서 많은 농민덜이 가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거이 을매나
 잘 현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없어져 뿔고 정든 사람덜이 뿔뿔이 풍지 박산 되야 뿐졌는디
 으찌…….”
 “딱하게 됐습니다.”
 50 “그라니께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라우. 우리헌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 집들 위로
 내리뻗은 고속 도로를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썹썹 내달았다.

문순태 <창작과 비평> (1978)

* 갈치배미: 갈치처럼 길쭉하게 생긴 논외 모양

2.

구두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 5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 10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 15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 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보는 것이다

송찬호 <10년 동안의 빈 의자> (1999)
